

## 시버(錫伯)족 언어 지역 탐방 보고\*

김 동 소\*\*

1996년 7월 7일 오후 7시 10분, 신장(新疆) 항공편으로 베이징(北京) 공항을 출발한 지 4시간만에 우룸치(烏魯木齊)<sup>1)</sup> 공항에 도착했다. 1990년 8월 이곳에 왔다 갔으니 꼭 6년만에 다시 찾아 온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중국은 썩 많이 변해 있었다.<sup>2)</sup> 다른 변화보다도 필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선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열었고, 또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옛 소련이 없어지고, 그래서 필자가 가고자 하던 찹찰 시버(察布查爾錫伯) 자치현이<sup>3)</sup> 과거에는 옛 소련과 접해 있었는데 이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접하게 됨으로써 이 찹찰(察布查爾) 지역에 외국인이 쉽게 들어 갈 수 있게 된 변화이다.<sup>4)</sup> 6년 전, 바로 만주어와 만주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이 찹찰 지역에 은밀히 들어가 시버(錫伯)족의 언어문화 자료를 구해 온

---

\* 1996년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비 해외 파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짐.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우룸치는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3,774km 떨어진 북위 43~44도, 동경 86~88도 지점에 있다. 인구 120만의 대도시로서 신장웨이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수도이다. 기원전 1세기 경 한대(漢代)의 서역도호부(西域都護部)가 처음으로 이곳에 둔진(屯陣)하였고, 당대(唐代) 현청(縣廳)을 설치하였으며, 1785년 청조(淸朝)에서 성보(城堡)를 수축(修築)하고 1884년 신장성(新疆省)이 건립되면서 그 성도(省都)가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서역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우룸치’는 몽고어로서 ‘우미(優美)한 목장’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현지 우이구르인들은 믿고 있다.
- 2) 필자는 1989년 여름과 1990년 여름에 중국을 여행한 일이 있었다. 특히 1990년의 여행에서는 이곳 우룸치시와 찹찰현을 방문한 바 있었는데 이에 관한 보고는 金東昭 (1992)에 들어있다.
- 3) 이 지역에 관한 소개는 후술될 것임.
- 4) 그러나 이 찹찰현은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된 지역은 아니었다. 후술할 바와 같이 이곳은 소위 제한 개방(控除開放) 지역으로서, 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할 때에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다.

일은 필자의 “만주어만주문자가 살아 있는 곳 —중국 참찰 시버족 자치현에 몰래 갔다 온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sup>5)</sup>, 이제 안전하게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우룸치로 비래(飛來)한 것이다.



<사진 1> 우룸치 공항

우룸치 공항에서 택시값 60위안(元)을<sup>6)</sup> 들여 시내로 들어와 6년 전에 묵었던 화차오 호텔(華僑賓館)에 짐을 풀고 곧 이닝(伊寧)<sup>7)</sup>으로 출발할 교통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6년 전 필자는 분명 우룸치와 이닝 사이를 50명쯤 타는 프로펠러 비행기로 왕복했는데 이제는 그 비행기가 너무 낡아서

5) 한글 학회 발간 《한글 새소식》 242호(1992년 10월 5일자) pp. 1721에 게재되었음.

6) 당시의 외환율로 보아 우리 돈 6천원 정도, 1998년 10월 기준으로 본다면 1만원이 넘는다.

7) 이닝(伊寧)은 현지인들에게는 이리(伊犁 또는 伊力으로 표기함)로 더욱 잘 알려진 도시이다. 이닝에서 참찰 시버 자치현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위험하기 때문에 운항되지 않고, 군사용이나 국가 정책상 꼭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13인승 경비행기가 오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비행기표는 외국인인 필자가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룸치와 이닝 사이는 험준한 텐산(天山)<sup>8)</sup> 산맥의 자락 때문에 아직 철도가 놓여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가는 방법은 버스밖에 없다. 버스는 정상적으로 가면 13시간쯤 걸리지만 그 무렵 도로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회해야 했고, 따라서 20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여행사 측의 이야기다. 또 베이징에서 듣기로는 신장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이<sup>9)</sup> 정부의 소탕작전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고 그 잔당이 산중에서 비적화(匪賊化)하여 지나가는 버스를 습격하는 일이 있으므로 버스 여행은 무척 위험하다고 하니 여행이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므로, 마침내 버스를 타기로 결정을 했다. 다행히 우룸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찰찰 출신의 궁라이(光萊)라는 시버족 청년과 사귀어 함께 가게 되어서 마음이 좀 놓였다. 궁라이는 작년(1995년)에 우룸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sup>10)</sup>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마침 휴가중이라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친구와는 만주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미 6년전에 경험한 대로 필자는 시버족의 현대 시버어(외국의 만주어 학자들이 이 말을 만주 구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를 귀로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필자가 쓰는 만주 문어는 그들이 대개 알아들었고, 궁라이와 같은 청장년층도 도회지에서 시버 문자(이 시버 문자는 만주 문자와 거의 같다)를 쓸 일이 거의 없으므로 문자는 잊어 버렸지만 만주어는 알아듣는 것

- 
- 8) 텐산은 바이산(白山) 또는 웨산(雪山)이라고도 불리는 신장 최고의 산명(山名)이다. 흉노족의 성산(聖山)으로 흉노어로 ‘騰格里山’을 텐산으로 번역한 것이다. 파미르(蔥嶺) 고원에서 시작하여 동서로 나뉘는데, 그 동주(東走)의 산맥을 중국에서 텐산으로 부르는 것이다. 최고봉인 Han Tenggeri(汗騰格里)산은 6,398m이고, 우룸치 인근의 Bogda(博格達)봉은 해발 5,445m로서 이 산봉 중턱(中麓)의 해발 1,900m 지점에 유명한 텐츠(天池)가 있다.
  - 9) 우이구르족들의 회교국가 건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을 말한다. 이 신장 우이구르족들의 독립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고, 1989~90년과 1997~8년에 극심하였다.
  - 10) 소수 민족인 시버족은 높은 교육 열성을 보이고 있다.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서 한족(漢族)을 제외하면 시버족이 가장 높은 대학 진학율과 문자 해독율을 보여준다. 金東昭 (1991: 2368) 참조.



<사진 2> 우룸치에서 이닝까지 693km를 타고 온 침대버스.  
우측이 시버족 청년 공라이군.

이었다.

우룸치에서 이닝까지는 693km. 직행 버스가 매시간 운행되는데, 버스는 60명 정원의 일반 좌석 버스와, 20여명이 탈 수 있는 2층 침대 버스(중국어로 ‘臥鋪’)의 2종류가 있었다. 버스삐은 좌석 버스가 65위안, 침대 버스가 108위안. 7월 9일 아침 9시, 침대 버스표를 구해 우룸치 시외버스 역을 출발했다. 버스는 운전자 2인이 교대로 운전을 하여 야간에도 쉬지 않고 달리고, 식사는 노변 음식점에서 운전사와 승객들이 매식(買食)한다. 그러나 음식점은 모두 우이구르(維吾爾) 민족이<sup>11)</sup> 즐기는 양육(羊肉)과 계육(鷄肉) 요

11) 우이구르족은 중국에서 維吾爾로 적고 Weiwuer로 발음한다. 사서(史書)에 ‘원홍(袁紇), 위홍(韋紇), 회홍(回紇), 회골(回鶻), 외올아(畏兀兒)’ 등으로 표기되어 나타난 서역 민족의 후손이다. 1990년 중국 제3차 인구 조사(普查)에 의하면 중국내의 총인구수는 7,214,431인으로 중국 소수민족 중 제5위가 된다. (1위는 장족(壯族)으로 15,489,630인, 2위는 만족(滿族) 9,821,180인, 3위 회족(回族) 8,602,978인, 4위 묘족(苗族) 7,398,035인, 6위 이족(彝族) 6,572,173인이다.) 이 민족은 주로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거주하여 1995



<사진 3> 우룸치에서 찻차로 가는 길가의 회교식 음식점

리만 하는 모슬렘(Moslem)식 찬청(餐廳)밖에 없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못하는 필자는 미리 1일 분의 물과 빵과 비주(啤酒 : 맥주)와 과일 등을 사 가지고 승차했다. 텐산 산맥을 남쪽으로 끼고, 북쪽 멀리 장엄한 알타이(阿爾泰) 산맥<sup>12)</sup>의 완만한 곡선을 바라보며 버스는 삼림과 황야와 초원과 불모

년 통계에 의하면 신장 지구만의 우이구르족 인구수가 7,194,675인으로 집계되었다(金東昭 1998 참조). 그들의 언어는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하고, 문자는 아라비아 문자를 쓰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를 신봉하고, 원래는 유목민족이었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당 천보(天寶) 3(744)년 회홀족이 오르혼(鄂爾渾)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한국(大汗國)을 건설했다가 당 개성(開成) 5(840)년 멸망한 후 서천(西遷)하여 신장 지역으로 이주하고부터 이 지역의 원주민과 혼거하면서 점차 우이구르족을 형성하였다.

- 12) 알타이어족(Altaic Language Family)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이 산맥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연방, 그리고 신장과 외몽고의 경계를 이루는 1,600km의 대산맥이다. 최고봉은 카자흐스탄의 동단에 있는 Belukha산으로 해발 4,506m이다. 알타이 산맥과 텐산 산맥의 사이에 필자가 여행한 중가리아(准噶爾) 분지가 있고 이 분지에 텐산 북로가 뚫려 있다. 알타이라는 말이 황금을 의미하는 몽고어 alta(n)에서 왔으므로 이 산을 진산(金山)이라고도 부른

지와 석전(石田)과 사막 사이의 길을 따라 서쪽으로 서쪽으로 달려갔다. 창지(昌吉)<sup>13)</sup>후투비(呼圖壁)<sup>14)</sup>마나쓰(瑪納斯)<sup>15)</sup>스허쯔(石河子)<sup>16)</sup>사완(沙灣)<sup>17)</sup>쿠이툰(奎屯)<sup>18)</sup>우수(烏蘇)<sup>19)</sup>토독(托托)<sup>20)</sup>을 통과하는 소위 텐산 북로를 11시간 달린 끝에 징허(精河)<sup>21)</sup>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되었다. 북쪽으로 4백km나 떨어져 있는 알타이산맥이 계속 우리 버스와 함께 달렸으니, 이 도로 북쪽에 얼마나 광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평원이야말로 바로 중가리아(准噶爾) 분지<sup>22)</sup>와 Gurbantunggut (古爾

다.

- 13) 신장 위이구르 자치구의 창지 회족 자치주 서부에 있는 현명(縣名). 텐산의 북록(北麓), 중가리아 분지의 남부에 위치한다. 청대에 설치했다. 밀짚 과일면양 등을 생산한다. 우룸치와 이닝을 연결하는 텐산 북로에 들어 있다.
- 14) 창지 회족 자치주 서부에 위치한다. 1918년 창지현에 후투비현을 설치했다가 후에 정화(景化)현으로 개명했는데, 1953년 다시 후투비현으로 고쳤다. 시버족의 어떤 민간전설에 의하면 이 민족이 서천(西遷)할 때 이곳에 이르자 심한 선풍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고 시버인들이 'hutu bi!(귀신이 있다!)'라고 한 데서 이 지명이 유래되었다 한다.
- 15) 중가리아 분지 남부와 텐산의 북록(北麓) 마나쓰하(河) 상류에 위치. 청대에 수이라이(綏來)현이라는 명칭으로 설치했다가 1953년에 마나쓰현으로 개칭했다. 마나쓰하(河)는 텐산 북록(北麓)에서 발원, 북류하여 마나쓰호로 유입되는 450km의 하천이다.
- 16) 텐산의 중단(中段) 북록(北麓)과 중가리아 분지의 남연(南緣), 마나쓰하(河)의 서안(西岸)에 위치한 도시. 1975년 설시(設市). 농공 결합의 신형 도시로서, 방직전력화학기계제당제지식품 등의 공업과 농축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어 '사막 중의 명주(明珠)'라고 예찬된다.
- 17) 텐산 북록(北麓)과 마나쓰하(河) 중류 평원 위에 있는 현. 1915년 수이라이(綏來)현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되었다.
- 18) 신장 위이구르 자치구의 이리 카자흐(伊犁哈薩克) 자치주 중부에 있는 도시. 1975년 설시(設市)한 신흥 공업도시. 면방직연초(煙草)화학 등의 공업이 발달되었다.
- 19) 이리 카자흐 자치주의 중부에 위치한 현. 청대에 쿠얼커라우우수청(庫爾喀喇烏蘇廳)을 설치했고, 1913년에 우수현으로 개칭했다. 관개(灌溉)가 편리하여 농축산업이 성하고, 신장 북부지역의 교통 요지로 알려져 있다.
- 20) 이리 카자흐 자치주의 서북부에 위치한 현. 카자흐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광활한 초원으로 인해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 21) 청대에 징허 직예청(直隸廳)을 설치했고, 1913년 징허현으로 개칭했다. 농축산업이 성하고, 특히 경내의 아이비(艾比)호는 산염지(產鹽地)로 유명하다.



<사진 4> Sayram 호수에서

班通古特) 사막<sup>23)</sup>인 것이다. 여행 중 텐산 산맥알타이 산맥을 조망하며 가졌던 감회들과, 길에서 만났던 여러 사건들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몇 번이나 타이어가 펑크나서 ‘바오타이(補胎 : 펑크 수리)’하노라고 지체했던 일과,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 초원을 지나가는 우이구르족카자

- 
- 22) 신장 지구에 있는 면적 70만km<sup>2</sup>의 분지. 동쪽의 해발 고도는 1,500m이고 서쪽은 200m로 크게 경사져 있으며 평균 해발 고도는 500m가 된다. 1월과 7월의 기온차는 40-50도나 되는 대륙성 기후이며, 강수량은 1년 150-250mm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마나쓰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갖추어 종래의 목축업 외에 보리옥수수목화 등을 생산하는 농업 지대가 되었다. 또 분지 내에서 석유를 위시한 석탄금 등 지하 자원이 발견되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옛날부터 텐산 북로로서 유명하며 동서 교류의 큰 몫을 해왔는데, 오늘날도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 23) 중가리아 분지의 중부, 마나쓰하(河) 이동(以東)과 우룬구(烏倫古)하(河) 이남 지구에 있는 면적 6만km<sup>2</sup>의 사막. 서북풍과 서풍의 영향으로 고도 30-40m의 대사룡대(大沙龍帶)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의 반은 사구(砂丘)이고, 나머지에는 사생식물(砂生植物)이 자라 목장을 이룬다.

호족<sup>24)</sup> 유목민들을 바라보던 일, 그리고 귀로에서 보았던 광활한 Sayram(賽里木) 호수<sup>25)</sup>의 청남빛 수색(水色)과 호수 건너편의 백설 덮인 Kokirgin(科古琴) 산봉(山峰)의 정경은 언급이라도 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곳 징허에서부터 Bortala(博爾塔拉) 몽고 자치주<sup>26)</sup>가 시작된다. ‘은색의 초원’이란 뜻의 몽고어 ‘Bortala’라는 말에 부합하게 이곳은 맑은 물과 비옥한 초원과 광활한 삼림이 펼쳐져 있는 낙원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용어는 중국어와 위구르어이므로 우룸치에서 이곳까지의 가두 간판은 모두 한자와 위구르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세로쓰기의 몽고문자가 덧붙여 3개국 문자로 표기된다. 이곳 저녁 8시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 무렵이 된다. 신장은 따로 표준시를 두지 않고 베이징(北京) 시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공무원 출근 시간이 아침 10시이고 퇴근 시간은 저녁 8시이다. Bortala 몽고 자치주를 지나면 텐산 산맥의 갈래인 Borohoro(婆羅科努) 산맥<sup>27)</sup> 안에 험준한 Kokirgin(科古琴)산이

24) 카자흐족은 고대의 오손(烏孫)돌궐거란 민족들의 일파와 몽고족의 일부가 혼거하면서 형성된 민족으로 전해진다. 1990년 중국 인구 조사(普查) 결과에 의하면 1,111,718인이고, 그 대부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리 카자흐 자치주에 거주한다.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하는 언어와 아라비아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회교를 주로 신봉하고 목축업에 종사한다.

25)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북단에 있는 Bortala(博爾塔拉) 몽고 자치주의 서남부에 위치한 자연 호수명이다. 동서 20km, 남북 30km, 면적 457km<sup>2</sup>, 해발 2,073m, 깊이 85m로서 신장에서 가장 고지에 위치하는 고산호(高山湖)이다. 호수가 극히 맑아서 투명한 녹옥(綠玉)같이 보이고, 주위에 군산(群山)이 에워싸고 있어 설봉(雪峰)이 도영(倒影)하는 청유(淸幽)한 정경은 가히 일품이라 할 만하다. 텐산 이북에서 가장 경관이 우미(優美)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26) 1954년 7월 자치구로 시작했다가 1955년 자치주로 개설되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자치주의 정부는 보러(博樂)현에 있다. 보러징허원환(溫泉)의 3현을 통할한다. 당대(唐代)에 쌍하도독부(雙河都督部)를 설치하여 북정도호부(北庭都護部)에 예속시켰고, 청대에는 이리(伊犁)장군이 통할하게 하였다. 후에 징허청을 설치하여 이타다오(伊塔道)에 소속시켰다. 총인구는 1991년 현재 329,926인으로 주요 주민은 몽고족(24,348인), 카자흐족(36,403인), 위구르족(46,768인), 한족(漢族)(208,684인), 회족(11,181인) 등이다. 축산업기계 공업식품 가공업 등이 성하며, 우룸치로부터 이닝까지의 공로(公路)가 남경(南境)을 횡관(橫貫)하고 있다.



버티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우타이(五台)<sup>28)</sup>에서 목적지인 이닝까지가 겨우 2백km밖에 안 되는데도, 이 노선을 통과하는 데 무려 11시간이 걸렸고, 이닝에 도착한 것은 7월 10일 오전 7시 30분이었으니, 우룸치에서 이닝까지의 7백km 못 되는 거리를 22시간 반이나 걸려 온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필자가 탄 차가 침대차였기 때문에 계속 편안히 누워 올 수 있었으나, 일반 버스였다면 배겨내기 어려웠을 여행이었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들은 뜬소문 —버스가 습격 당할지 모른다, 소매치기가 많으니 돈이나 귀중품을 조심해라, 등등—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므로 더욱 피곤했으나, 뜬소문은 뜬소문일 뿐 아무 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사진 5> 이닝시 소재 이리사범대학 정문

- 27) 보뤄훤러(博羅霍洛) 산맥, 또는 타얼치이링(塔爾奇依楞) 산맥이라고도 불린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그 최고봉은 5,500m이다. 북톈산 서단에 속하고, 이리하(河)와 중가리아 분지의 경계가 된다.
- 28) Bortala(博爾塔拉) 몽고 자치주의 한 가운데 있는 소현(小縣). 징허에서 서쪽으로 60km 지점에 위치한다. 징허 → 다허옌쯔(大河沿子) → 우타이 → 쓰타이(四台) → 썬타이(三台) → 신얼타이(新二台) → 칭즈허쯔(清水河子) → 휘청(霍城) → 이닝의 순서로 공로(公路)가 서주(西走)하고 있다.

이닝은 이리 카자흐 자치주<sup>29)</sup>의 수도로, 인구는 30여만 명. 이리 카자흐 자치주의 공용어는 카자흐어이기 때문에 이곳의 가두 간판은 다시 중국어·우이구르어·카자흐어로 표기된다. 4년제의 이닝 사범학원이 있고, 농산품과 목축산품의 집산지며, 건조한 신장지방에서 특이하게 강우량이 많아 ‘한해(瀚海) 중의 습도(濕島)’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닝에 도착하는 즉시 먼지 투성이의 몸을 씻을 여유도 없이 찻칼로 가는 ‘빵차’(25인이 타는 우리의 승합차처럼 생긴 작은 버스인데, 생긴 모양이 식빵처럼 생겨서 중국인들은 ‘몐바오차(麵包車: 빵차)’라고 부른다)를 타고 Ili bira amba doorin(伊犁河大橋)을 건너 50분쯤 달려, 마침내 6년 동안 그리던 찻칼 시버 자치현에 도



<사진 6> 찻칼의 길거리 선전판.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말이 한어, 우이구르어, 시버어, 러시아어로 씌어져있다.

29) 이리 카자흐 자치주는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서부에 위치하고, 서쪽은 카자흐스탄과 접경하고 있다. 1954년 11월에 자치주가 성립되었다. 이리타청(塔城)아러타이(阿勒泰)의 3지구와, 쿠이툰이닝 등 2시(市), 이닝 등 21현을 통할한다. 자치주의 수도는 이닝시이다. 1991년 조사에 의하면 자치주의 인구는 3,383,691인인데, 그 중 카자흐족이 896,140인, 우이구르족이 549,874인, 회족이 270,425인, 한족(漢族)이 1,491,398인이다. 이리 말(伊犁馬)과 신장 세모양(細毛羊)이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착하였다. 6년 전에는 이곳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찹찰의 입구인 Ili bira amba doorin을 건널 수가 없어 검문소 앞에서 탄식하다가 우연히 찹찰 출신의 택시 운전사를 만나 몰래 두어 시간 들어갔다 온 일이 잊혀지지 않는데, 필자를 가로막던 그 검문소는 없어지고 이제 필자는 아무 저항 없이 찹찰현으로 들어 온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공용어가 다시 시버어로 바뀌어 간판은 한자우이구르 문자시버 문자로 표기된다.

시버족은 원래 중국 동북방에 웅거했던 선비(鮮卑) 또는 실위(室衛)족의 후손으로, 17세기 중반까지 그들은 말갈여진만주 민족들과 혼거하면서 통구스화(Tungusicalization)하였고, 특히 청국(淸國)이 건립되면서 그들은 거의 남만주 지방으로 내려와 만주어만주 문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청 건륭(乾隆) 29년(1746), 시버족 역사의 최대 비극이자, 시버 민족사의 일대 전환이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다. 청 조정은 서북 변경인 이리 지역의 국경 방비를 위해, (만주족과 가까우면서도 만주족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용맹한 민족인 시버족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가도록 결정한 것이다. 청 조정은 당시 성징(盛京: 현재의 선양(瀋陽)) 일대에 있던 시버족 군인과 그 가족 3,275명을 뽑아, 고향에서 4천km 이상 떨어진 신장성의 이리강 서쪽 찹찰 지역으로 강제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 비극적인 민족의 이동과 그 후의 현지 정착 과정은 현재 시버족들 사이에 슬픈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고, 많은 전설과 민요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시버족으로서는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언어학적민족학적으로는 커다란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되었다. 중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만주족들은 일부 오지(奧地)를 제외하고는 한화(漢化)하여 만주어를 거의 잊어버렸고, 시버족 중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잔존한 사람들은 만주족과 마찬가지로 그들 언어인 만주어를 잊어버렸지만, 서북쪽으로 이동된 시버족의 후손들은 현재까지 그들의 언어문자(만주어만주 문자)와 풍속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국의 시버족은 1990년 전국 인구 조사(普查)의 결과에 의하면 172,847 인이고,<sup>30)</sup>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서의 시버족은 33,082인이며, 다시 찹찰

30) 1982년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83,683인이었는데, 8년만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상의 인구 증가가 아니라 중국 소수 민족 사이에 민족

현의 시버족은 20,120인이다. 6년 전 필자가 이곳에 왔을 때 참찰의 시버족 인구는 17,362인이었으므로 2,800인 정도 시버족이 증가한 셈이다. 시버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기술(既述)한 대로 19세기까지 청대의 만주족들이 쓰던 만주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주문어에 없던 새로운 어휘와 차용어가 많이 생겨났고, 만주문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철자법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들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만주어와 다름이 없고, 사실상 중국 동북 지구 헤이룽(黑龍)강 유역의 극소수 만주인들이 쓰고 있는 현대 만주 구어와 비교해 보아도 방언차 정도만 드러내므로, 이 시버족의 언어를 만주어 방언으로 처리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시버족들은 굳이 ‘시버어(Sibe Gisun)’라고 부르기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의 학자들도 모두 ‘錫伯語’로 부르고 있다.



<사진 7> 8일 동안 묵었던 Cabcal siyan antaha kuren 현관에서  
참찰 버스 정류장에서 손수레꾼을 불러 짐을 싣고 궁라이군이 안내하는

주의가 크게 만연된 까닭이다. 동일한 예로 1982년의 만주족이 430만인이었는데, 90년 조사로는 9,821,180인이 된 것은 1982년에는 소수 민족임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로 Cabcal siyan antaha kuren(察縣賓館)에 들었다. 하루 숙박료가 60 위안밖에 되지 않는 싼 호텔이었으나, 침대 2개와 온수가 나오는 샤워 시설 및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 지내기에 큰 불편은 없었다. 궁라이군은 다시 버스를 타고 시골 고향으로 가고, 필자는 만 하루 동안 버스에서 뒤집어 쓴 텐산 북로의 먼지를 씻은 후 침대에 누워 잠시 휴식하면서 앞으로의 자료 수집 계획을 세우려니,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주어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지역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일이 현실 같지 않은 것이다. 이곳에서 필자가 할 일은 되도록 많은 시버인들을 만나 그들의 언어와 풍속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참찰 시버 자치현은 1954년 자치현으로 성립된, 중국 유일의 시버족 자치 지역이다.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이리 카자흐 자치주 안의 이리 지구에 소속되는 이 지역은 텐산 산맥의 한 줄기인 우순(烏孫)산 북쪽과 이리강 남쪽의 분지에 위치한다. 북위 43도 17분에서 57분 사이와 동경 80도 31분에서 81도 43분 사이에 있고, 동서의 최장 거리는 약 90km, 남북 최장거리는 70여km이다. 남쪽은 자오쭈(昭蘇)현터커쓰(特克斯)현과 접해 있고, 북쪽은 이닝시, 동쪽은 궁류(鞏留)현, 서쪽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의 최서북단에 위치하는 셈이다. 자치현의 총면적은 4,430.34km<sup>2</sup>인데 그 중 평원이 전체 면적의 43.3%이고, 구릉지가 27%, 산악 지대가 28.7%이다. 이곳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에 속하지만 북빙양 기류의 영향으로 온화습윤(濕潤)한 편이며, 초하(初夏)에는 다우(多雨)하여 연 평균 강우량은 350mm, 연 평균 기온은 섭씨 8.5도(최고 기온 38.4도, 최저 -32.6도), 무상일수(無霜日數)가 158일이므로 각종 농작물의 성장에 적당한 편이다. 주산업은 농업(농민이 전체 인구의 70.7%)으로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4.58%인 96.93만 무(畝)(1무는 6.667are), 주요 농작물은 보리쌀옥수수밀수수감자콩 등이며, 특산물로 참찰 수박이 유명하다. 농업 다음으로는 광활한 초원(493만 무(畝), 전면적의 74.19%)의 덕택으로 축산업이 발달해서 소양말돼지나귀낙타사슴 등의 생산이 성하고, 광산물로는 석탄철구리 등이 풍부하다. 전체 자치현 상주민의 총인구수는 148,151인(1990년 인구조사)인데 이 중 우이구르족이 3만여

인, 카자흐족이 2만여 인, 시버족이 20,120인, 한족(漢族)이 2만여 인, 기타 회족카르기즈족몽고족우즈베크족만주족러시아인 등 18개 민족이 있다. Cabcal(공식적인 로마자 표기는 Qapqal)이란 단어는 시버어로 ‘식량 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cab‘식량’+cal‘창고’).

참찰에 도착한 7월 11일부터, 7월 18일 이곳을 떠날 때까지 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했던 사람들과 수집한 자료를 전부 말하기는 너무 장황할 것 같아 중요한 것만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필자가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한 곳부터 이야기하면 참찰현 정부의 어문위(語文委)방송국신문사제일소학교교육국시버어 교사 연수원문화관서점 등으로서, 필자를 맞이해 많은 자료를 아낌없이 내 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준 이 시버인들을 필자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오제원(紹介訊)’이라는 일종의 추천서가 없으면 어떤 공적인 자료도 얻어 낼 수가 없다. 베이징에서 이곳으로 올 때 미처 만들어 오지 못했으므로 필자에게는 아무런 추천서가 없었고, 또 이런 사정으로 인해 난관도 많았으나, 결국은 목적했던 모든 시버어 관계



<사진 8> 시버족 학자 Tunggiya Kiceng 선생 내외분과 함께



자료를 손에 넣는 행운을 얻었다. 자료 수집에 특히 도움을 준 시버인들의 성명을 몇 사람만 기록해 보면, Tunggiya Kiceng(修家吉成)Tung Šue Meng(修學孟)Giyoro Cunšeng(趙春生)Kūwanggiyar Yuceng(關玉成) Iktantai (伊克坦太)Tung Yusiayang(修玉香) 등이다. Tung(修)씨 성을 가진 시버인이 많음을 보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이 다대했던 여진족 장군 ‘통두란(修豆蘭)’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버인들은 스스로 여진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현 정부 어문위(語文委)의 외빈 접대 책임자인 Tung Šue Meng(修學孟)씨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성인데, 필자를 데리고 방송국신문사교육국 등으로 안내해 주었고, 참찰 문화관의 호걸스럽게 생긴 Giyoro Cunšeng(趙春生) 선생은 시버족 민요와 전통 희곡의 녹음 테이프 및 그 원고를 만들어 주었다.

참찰 체류 중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7월 14일 일요일, 외국인 접근 엄금의 국경 지대인 Aisin Šeri(愛新舍里: ‘황금의 샘’이란 뜻) 지역에 들어가 이웃 나라 카자흐스탄 국경을 보고 온 일과, 출입국 관



<사진 9>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을 이루는 이리강

리법 위반 혐의로 공안국에 불려가 벌금을 물고 온 일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과의 접경 지대는 광막한 황무지뿐이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이리강 주변인 이 국경 지대를 꼭 보아야겠다는 욕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는데, 다행히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발각되었다면 구속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안국에 불려 간 것은, 필자가 처음 참찰에 들어 와서 외국인 체류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또 필자가 묵고 있는 호텔이 외국인 숙박소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이 참찰 지역은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된 곳이 아니라 제한 개방 지역(중국어 ‘쿵즈 카이팡 디위(控制開放地域)’이었다. 제한 개방 지역에 외국인이 오면 반드시 공안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건장한 체구에 금발을 갖고 있는 젊은 우이구르족 경찰인 Kurban(庫爾班)은 내 여권부터 압수하더니,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고 벌금 2천 위안을 내고 여기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내 놓은 뒤 24시간 내에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 애써 모은 자료가 아까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벌금 2,000위안 내기도 억울해서 우선 벌금 액수를 좀 깎아 달랬더니 그러면 1,000위안만 내라고 한다. 다시 더 깎아서 결국 800위안을 주고 여권을 돌려 받아 공안국을 나오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중에 들으니 이곳에 들어왔던 외국인치고 벌금을 안 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법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법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벌금을 물고 나서, 나의 방문 목적을 다시 자세히 듣더니 순수한 학술 조사 여행임을 인정한 듯, 원한다면 필자가 머물던 호텔에 그대로 있어도 좋다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 외국인 전용 호텔의 1일 숙박비가 200위안이나 되었으므로, 결국 필자는 벌금을 물고도 값싸게 여기 머문 셈이 되었다.

참찰 방송국에서 시버어 방송 현황을 알아보니, 라디오는 매일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일 4시간씩 시버어로 방송을 하고, 텔레비전은 목요일과 토요일 2일간 밤 10시부터 10분간 시버어로 뉴스를 내보낸다고 한다. 6년 전에는 유선(有線) 시설만으로 시버어 방송을 했는데, 이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lt;사진 10&gt; 참찰 방송국장과 함께

참찰바오(Cabcal Serkin, 察布查爾報)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시버어시버 문자로 인쇄하는 신문이다. 6년 전과 다름없이 타블로이드 크기 활자판 4면으로 한 주일에 2회 발간하는데, 발행 부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 들어 현재는 9백부만 찍고 있다고 한다. (6년 전에는 1,300부를 찍었다.) 1996년 7월 13일자가 제3063호였고, 보도나 교양 기사보다도 정부 선전문을 주로 실고 있어서 인기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부터는 활자를 버리고 컴퓨터 출판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한다.

참찰 시버 자치현 제일소학교(Cabcal Sibe dzajy siyan ujui ajige tacikū)는 6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 때도 방학중이었는데 마침 학교에 나와 있던 교사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었지만, 이번에는 막 방학을 한 때문인지 학생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교사들 몇 분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안수메이(安素梅)라는 시버족 여교사를 만나 시버어 교육 현황을 들었는데, 6년간 시버어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학생들도 교사들도 별로 열성을 내지 않는다는 서글픈 이야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소학교 시



&lt;사진 11&gt; 참찰 신문사 편집부

절에 애써 시버어과 시버 문자를 배워도 중학교만 들어가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것. 더군다나 시버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도, 시버학을 전공하는 대학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소학교만 졸업하면 더 이상 시버어와 시버 문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린(吉林)성의 옌지(延吉)시에 조선어로 교육하는 옌벤(延邊) 대학이 있지만 조선족 학생들조차 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꺼리고, 한어(漢語) 대학에 가서 유창한 중국어를 습득하려 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버어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친절하게도 안 선생은 자기가 갖고 있던 시버어 교과서 1질(4권)과 옛 교과서 몇 권을 필자에게 주었다.

참찰 교육국을 찾아가 시버어 장학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궁금했던 일은, 현재 시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8개 소학교의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점이었는데, 대답은 초중(初中: 한국의 중학교)을 졸업한 시버족 학생 중에서 3년마다 80명씩을 뽑아 3년제 진슈(進修) 학교(= 한국의 교원 연수원)로 보내서 사범 교육을 시킨다는 것. 그 진슈 학교의 교수는 누가 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주로 대학 인문계 출신의 시버족들이



<사진 12> 참찰 시버 자치현 교육국 시버족 장학사들과 함께

담당한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비전문가가 언어 교육을 맡게 되면 사정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6일부터 2개월 동안 참찰 제일중학교에서 열리는 시버어 교사 진수후이(進修會=연수회)에 필자를 초청하겠다는 말을 교육국 당비서로부터 듣고, 그곳에 간 것은 필자에게 꽤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참찰 지구의 8개 소학교에서 시버어를 담당하는 남녀 교사 20여명이 재교육을 받고 있었다. Kūnggur Šurui(孔淑瑞)라는 시버족 40대 여교사는 시버 문자부터 시작하여 친절하게 교사들을 가르쳤다. 여러 시버족 학자들에게 물어 봤던 몇 가지 질문을 이 선생에게도 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만주어의 'ku'와 'kū'의 발음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었다. 지금껏 많은 외국의 만주문어 학자들이 만주어 모음 'u'의 음가를 규명하려고 애를 써 왔지만, 이 문제는 참찰에 들어 와서 간단히 해결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ku'의 음가는 [ku]이고, 'kū'의 음가는 [qu]로서, 'ku'와 'kū'의 차이는 모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음에 있는 것이고, [q]는 [k]의 변이음(變異音)으로서 [qu], [gu]를 적



<사진 13> 시버족 교사 연수회. 왼쪽 끝이 시버족 Kūnggur Šurui 선생

기 위해 모음 글자 [u]를 만든 것은 아무래도 몽고 문자의 영향을 받은 과잉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어나 고어를 연구하는 음운론 학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하려 해도 문자에 현혹되어 음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러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낀 것이다.

10일간의 찻찰 생활을 끝내고, 29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다시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룸치에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1996년 7월 18일 저녁 9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탔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룸치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째 밤인 7월 20일 새벽 2시였다. 시버어로 출판되는 거의 모든 책은 이곳 우룸치에 있는 신장인민출판사에서 발간되고 있다. 우룸치에서 Kicešan(奇車山) 선생과 6년만에 다시 반갑게 만났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우룸치에 머물면서 이 Kicešan 선생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지냈다. Kicešan 선생은 찻찰 출신의 대표적인 시버어 학자로서, 현재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민족언어문자 위원회의 유일한 시버어 연구원으로 있다. 함께 우룸치의 역사박물관, 신장인민출판사, 하나밖에 없는 시버어 잡지인 <錫伯



<사진 14> Urumci 소재 신장대학  
정문에서 Kicešan 선생과 함께

文化> 편집부, 민족언어문자 위원회, 신장대학의 알타이(阿爾泰)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이미 6년 전에 만났었던,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많은 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새로 만나게 된 학자 중 시버족 어문연구학회 비서장(秘書長)인 Tungja Cingfu(佟加慶夫)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많은 자신의 논저와 시버어 자료를 필자에게 기증했으며, 또 그가 개발한 시버어 중국어우이구르어몽고어만주어카자흐어 겸용 전산기 word processor system을 살펴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 기간 중인 7월 21일이 일요일이어서 우룸치 성당을 6년만에

다시 찾아가 주일 미사에 참례(參禮)하였다. 6년 동안 중국 천주교회도 꺾 변화되어 있었다. 6년 전에는 60년대 이전의 미사 순서(ordo missae)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미사도 바티칸 공의회(公議會) 이후의 쇄신(刷新)된 Roma Catholic 전례(典禮)를 행하고 있었고, Latin어 성가와 기도문도 전부 중국어로 바꾸어 쓰고 있었다. 벽쪽으로 향하고 있던 제대(祭臺)는 신자 쪽으로 돌려졌고, 전례(典禮) 중심에서 벗어나 주일 강론도 상당히 성의 있고 길게 진행되었다. 다만 성체배령(聖體拜領)을 신자들의 손이 아니라 혀로 하고, 주일 미사 때마다 분향 의식을 하며, 미사 후에 성체강복(聖體降福) 예절을 행하는 것은 60년대 이전 필자가 어렸을 때 하던 예식과 다름이 없었다. 6년전 필자에게 우이구르어 신약성서를 선물하셨던 셰팅저(謝廷哲) 신부님이 그대로 본당을 지키고 계셔서 반갑게 재회를 즐길 수 있었다.





<사진 15> 신장대학 알타이학 연구소

우룸치 시내에서 버스에 ‘차파오서우런우(車票售人无)’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우이구르어카자흐어 몽고어시버어 등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구문의 알타이어를 쓰는 민족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자를 이렇게 ‘서기체(誓記體)(?)’ 표기로 적어 둘 이가 없을 것인데 어찌된 것이냐고 Kicešan 선생에게 물었더니, ‘표 파는 사람이 없는 차’라는 말을 우측에서 좌향으로 써 놓은 것이라고 하여 함께 웃었다. Kicešan 선생과 같은 알타이어족 사람들끼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을 생각하니, 시버족에게 더욱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Sirame acaki, Cabcal jai Urumci! (잡찰이여, 우룸치여, 안녕)’을 속으로 뇌며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온 것은 1996년 7월 24일 오후 2시였다. 베이징에서 세계적 여진어만주어 학자이신 진치충(金啓琮) 선생님을 역시 6년만에 댁으로 찾아 뵈었다. 올해 연세가 80세에 가깝고(1918년생) 당뇨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지만, 아직도 학문에 관한 열정은 대단하셨

다. 필자를 보고 더없이 반가워하시며, 동료제자들이 김 선생님의 《慶祝執教50年紀念論叢》을 준비 중이니 여진어만주어 관계 논문 1편과 그 책 서두에 실을 여진자 축필을 꼭 써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다. 필자에게는 더없는 영광이라 꼭 써 올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선생님은 역시 여진어만주어 학자였던 부친 진광평(金光平) 선생과, 치충(啓琮) 선생 당신과, 만주어 학자인 차녀 Ulhicun(烏拉熙春) 등 3인의 여진어만주어 관계 논문을 모아 1천면이 넘는 《三代論文集》을 곧 출판한다고 하시며 그 교정지를 보여 주시기도 했다. 이런 논문집은 참으로 희귀하고 자랑스러운 책이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sup>31)</sup> 청대 건륭(乾隆) 황제의 후손으로 여진만주 학계의 거벽(巨擘)이신 이 대학자 진치충(金啓琮) 선생님의 건강을 빌고, 귀국 즉시 여진자 휘호와 논문을 만들어 보내 드리리라 속으로 다짐하며 선생 댁을 나왔다.<sup>32)</sup>

#### [ 참 고 문 헌 ]<sup>33)</sup>

- 金東昭 (1992): “만주어만주문자가 살아 있는 곳 —중국 참찰 시버족 자치현에 몰래 갔다 온 이야기—.” 《한글 새소식》 242 (서울:한글학회).  
 金東昭 (1996a): “다시 만주말의 고장을 찾아 (1) —중국 참찰 시버족 자치현에서 살다 온 이야기—.” 《한글 새소식》 289 (서울:한글학회).  
 金東昭 (1996b): “다시 만주말의 고장을 찾아 (2) —중국 참찰 시버족 자치현에서 살다 온 이야기—.” 《한글 새소식》 290 (서울:한글학회).  
 金東昭 (1996c): “錫伯族 言語 研究 序說.” 《알타이 학보》 6 (서울:한국알타이학회).

31) 이 논문집은 《愛新覺羅氏三代滿學論集》이라는 이름으로 1996년 8월 내몽고 후호후트(呼和浩特)시의 원방(遠方)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46배판 435면, 2,000부 출판). 이 논문집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金東昭 (1997) 참조.

32) 진치충(金啓琮) 선생의 이 《慶祝執教50年紀念論叢》은 논문 수집은 끝났으나 발간비 문제로 인해 1998년 9월 현재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33) 이 참고문헌 목록은 시버어와 시버족에 관한 다소 비전문적인 논저 중에서 위의 글을 쓰는 데 직접 참고된 것만 적은 것이다. 시버어시버족 연구에 관한 상세한 참고문헌은 金東昭 (1996c:19-24)를 참조할 것.

- 金東昭 (1997): “희한한 학술 논문집의 출판과 진 치중 선생 부녀 — 《‘아이신 교로’씨 3대 만주학 논문집》을 보고—.” 《한글 새소식》 298 (서울: 한글학회).
- 金東昭 (1998): “新疆地區의 Tungus族과 그 言語.” 《알타이 학보》 8 (서울: 한국알타이학회).
- 楠木賢道 (1992): “シボ族が記したシボ族研究論文集.” 《東方》 136 (東京: 東方書店).
- 大連市錫伯族學會大連市政協文史委員會 (1994): 《錫伯族圖錄》 (北京: 民族出版社).
- 修克力 (1989b): 《錫伯族歷史與文化》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白友寒 (1986): 《錫伯族源流史綱》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 謝善智 (1990): “錫伯族的西遷簡介.” 《伊犁文史資料(錫伯族專集)》 (伊寧: 伊犁日報社).
- 錫伯文化研究編輯部 (1994): 《錫伯文化研究》. 察布查爾錫伯自治縣成立40周年專刊. (察布查爾錫伯自治縣語委).
- 錫伯族簡史編寫組 (1986): 《錫伯族簡史》 (北京: 民族出版社).
- 宋享根 (1994): “중국 소수 민족 언어 개황 ⑦. 《錫伯(시버)語簡志》.” 《주시경학보》 13.
- 新疆維吾爾自治區古籍辦公室 (1987): 《錫伯族歷史資料拾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安俊吳元豐趙志强 (1985): 《錫伯族簡史》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閻向東 (1990): “新疆錫伯語保存之原因.” 《滿族研究》 19.
- 吳作新 (1986): “錫伯族的遷徙.” 《錫伯族史論考》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 吳扎拉克堯吳扎拉斌 (1984): “錫伯文滿文蒙古文.” 《言語通訊》 2.
- 伊犁地區地方志編纂委員會 (1990): 《伊犁風物》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李樹蘭仲謙 (1986): 《錫伯語簡志》 (北京: 民族出版社).
- 早田輝洋 (1985a): “北京でシボ族に會う.” 《九州大學文學部同窓會會報》 28.
- 早田輝洋 (1985b): “錫伯語調査ノートより.” 《九大言語學研究室報告》 6 (九州大學文學部言語學研究室).
- 早田輝洋 (1985c): “シボ語について.” 《月刊言語》 14-7 (東京: 大修館書店).
- 中共察布查爾錫伯自治縣委員會 (1992): 《察布查爾錫伯自治縣簡介》 (察布



- 查爾錫伯自治縣人民政府).
- 知識出版社 (1994): 《中國民族博覽》 (上海:知識出版社).
- 察布查爾錫伯自治縣概況編寫組 (1986): 《察布查爾錫伯自治縣概況》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察布查爾縣文化館 (1984): 《錫伯族民間歌曲集》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 賀灵 (1995): 《錫伯族百科全書》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 賀灵修克力 (1989): 《錫伯族習俗志》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 賀灵修克力 (1993): 《錫伯族史》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 賀忠德 (1994): “今日新疆錫伯族.” 《錫伯文化研究》 (察布查爾錫伯自治縣語委).
- 胡增益 (1995): “新疆地區滿語文使用情況考略.” 《民族語文》 96.